

“연 200억달러 한도 가장 의미… 국익 지키려 몸 갈아넣어”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협상 후일담

“점심 먹으러가다 돌아와 화상전화
美 러트닉 ‘축하한다’며 사인 보여”

“결정된게 없고, 관세부와 시행 앞둔
스코틀랜드 회동때 가장 힘들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119일째를 맞아 대미 전략투자 협상 막전 막후를 공개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몸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힘든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협상 마지막 국면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가운데, 김 장관은 “연간 200억달러 투자한도와 외환시장 고려 조항을 지켜낸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공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임 이후 119일간 이어진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이날 점심 시간 즈음 돌연 미국측 러트닉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 장관은 “속으로 ‘아 대통령 팩트체크 했는데 뭘 또 잡으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라는 생각을 하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하나 했는데, 화상전화로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러트닉을)보고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웃음)”고 털어놓으면서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인하는 거 보여주더라. 저도 (사인)해서 보여주고 허그도 하고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협상을)마무리 짓게 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제가 죽으면 이거(관세협상) 때문에 한 2달은 빨리 죽을 것 같다(웃음)는 애길 농담삼아 종종 했었다” “통(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영혼 갈아 넣었다’고 하는 거 보면서 이분(대통령)이 힘들었겠구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메시지 일원화를 위해 기자들 전화를 한 통도 받을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전화 왔는데 어느 분과도 통화를 안 했다”며 “러트닉이 ‘내가 말한 것만 한국 정부 뜻으로 알겠다’해서 제가 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스코틀랜드 틴베리 회동’을 꼽았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 갔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결정된 게 없었고, (관세부과가) 8월 1일 시행은 다가오는데 진도는 나가는 듯 마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러트닉과 만나기로 했으나, 장소를 정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겨 우왕좌왕했던 헤프닝도 전했다. 김 장관은 “(장소를)애버딘으로 추측해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러트닉에게 ‘자신은 글래스고 근처 틴베리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차로 3시간 이상 차이가 났고, 비행기표도 없어 공항에서 차로 4시간 이상 달려 글래스고로 이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 러트닉이 깜짝 놀랐다. 초대된 것도 아닌데 왔고, 연락이 안 돼서 4시간 이상 차로 달려온 것이니

까 (러트닉이)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만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전체 협상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대해 “미국 관료가 저렇게 애국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적장이 너무 위대해보이면 내가 위축되지 않나. 그래서 ‘채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김 장관은 가장 의미 있는 협상 결과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한도 설정을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훨씬 높은 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200억달러였다”며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해서 바랄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외환시장을 고려한 요소를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미일간 협상과 비교해,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의 참여 명시’, ‘상업적 합리성’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명시한 점 등을 더 유리한 협상 결과로 꼽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기후부, 올해 전기차 보급 20만대 기록

승용차 17.2만대, 버스 2400대 등
수소차 보급도 늘어 올해 5900대

연간 전기차 보급이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0만 대 진입을 기록했다. 지난해(14만7000대)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연초에 확정된 보조금 지침을 비롯해 신차 출시 등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준 국내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20만1000대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은 2011년 시작됐고, 이후 연간 보급 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하기까지 10년 걸렸다. 이후 4년 만에 20만 대 보급을 달성한 것이다.

연도별로 전기차 보급은 2021년 10만대에서 2022년 16만4000대로 급증했다가, 전 세계적인 캐즘(수요 둔화) 영향으로 2023년 16만3000대, 2024년 14만7000대 등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반등해 20만 대를 넘어섰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7만2000대, 전기버스 2400대, 전기화물차 2만6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외국산 비중이 45%에 달하며 국산이 55%에 그쳤다. 전기버스와 화물차는 국산 비중이 각각 64%, 93%였다. 전기버스는 2023년 국산 비중이 46%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63~64% 수준으로 회복됐다.

수소차 보급도 늘었다. 수소차는

2021년 8500대에서 2022년 10만3000대로 늘었다가 2023년 4700대, 2024년 3800대로 보급이 감소했지만, 올해 5900대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무공해차는 총 75만 대로, 지금과 같은 보급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초 누적 100만 대 보급을 달성할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활발히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 ‘경북대’ 선정

농식품부, 관련인재 양성에 적극

정부가 국내 ‘푸드테크 계약학과’ 설치 대학 수를 총 10개로 늘리는 등 관련 산업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 2026년 신규 운영대학으로 경북대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이라는 최신 흐름에 맞춰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정이다. 그간 경희대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에서 운영해 왔다.

올해 1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돼 전국에 총 10개 대학이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하게 된다. 사업계획의 충실성,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전북 익산에 들어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조감도. /뉴시스

교육수행 여건, 산업체 수요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북대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을 운영한다. 아울러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 식품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산·학 연계 과제를 수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가스공, 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천연가스 공급

한국중부발전과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으로 가스공사는 2027년~2036년까지 10년간 인천복합화력발전소 2·3호기에 연간 20만 톤, 전체 20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한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기반으로 올 6월 서부발전과, 9월 남부발전과 이어 중부발전도 새로운 개별요금제 고객으로 유치했다.

개별요금제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시설 이용률 향상을 통한 공급비용 인하를 위해 2020년 도입됐다.

특히 중부발전은 인천복합화력발전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이 지난 14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가스공사

소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 역할을 맡는 핵심 발전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개별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현재 연간 약 360만 톤의 누적 매매계약 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 플랫폼 ‘산업안전포털’ 17일 오픈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클릭 한 번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범했다.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있던 컨설팅·교육·지원사업 정보를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최초의 산재예방 종합 플랫폼인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 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서비스 창구다. 공단은 서비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임원 중대과실 초래시 ‘보수 환수’

임원 보수체계 전면 개편

농협중앙회가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이 조처는 범농협 계열사 임원들의 성과중심 경영 및 도덕적 책임성 강화에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은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영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기준 마련 ▲이연성과 급제 전 계열사 확대 적용 등이다.

우선 경영성과와 보수를 긴밀히 연계해 성과가 우수한 임원은 합당한 보수를, 경영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수

감액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과 책임이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열사의 경영평가 변별력을 높여, 책임경영체제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금융계열사에만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 제도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한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보상 체계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성과급의 일부를 일정 기간 후에 지급함으로써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세종=김연세 기자